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역경이 있기에 창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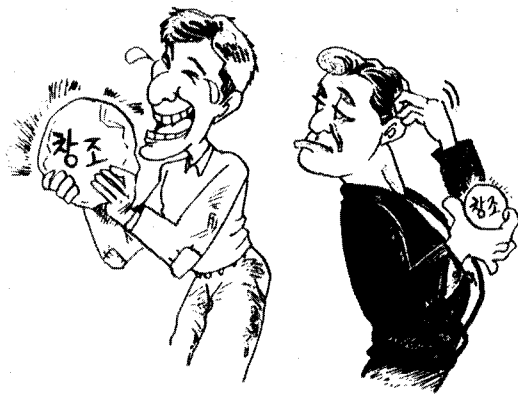
세상에 역경을 딛고 일어난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다. 역경이 있기에 창조도 있는 것이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데 창조보다 큰 힘도 없다.

발명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역경의 소산인 슬픔이나 미움까지도 발명을 낳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발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야망은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보다 가난과 같은 역경에 처해진 사람들이 갖게 되기 쉽다고 한다.

힘이 들면 들수록 그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그런 의지는 곧 성공하려는 야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이다.



고무의 발명가는 빛에 쫓겼고, 진주양식을 생각해 낸 사람은 이혼까지 한 가난한 생활을 했으며, 안전 면도기의 발명가 또한 힘든 영업사원을 하면서 도리어 발명에 대한 야망을 불태우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대정치가와 대실업가도 대부분이 젊었을 때 수많은 역경에 부딪쳤으며, 그 역경을 이겨낸 것은 역경이 창의력과 연구심을 낳게 하고, 노력과 인내력을 길러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역경은 사람을 창조적 사고로 몰아가는 힘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조적 사고는 꾸준히 지속될 때만이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발명가들이 가난할 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발명에 몰두하지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발명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아는 발명가 중에도 이런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기업이 부도가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또 다시 발명을 시작하곤 했다. 그러나 재기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창의는 가난했을 때는 친구였지만, 부자가 되면 떠난다.”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부자가 되어서도 발명을 계속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역경이 곧 성공의 지름길은 아니다. 이 역경은 어디까지나 발명에 있어서 동기 역할을 할 뿐인 것이다.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성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같은 결코 하나만이 아니다

“이 달걀을 세워 보시오”

당신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콜롬부스처럼 달걀의 끝을 깨뜨려 세우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에이! 또 무슨 방법이 있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문제를 회피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잘 살펴보자. 정말 콜롬부스가 썼던 방법밖에 없는 걸까?

천만의 말씀이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해결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것도 한두가지가 아

닌 수십 수백개의 해결책이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는 데 인색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뿐이다.

좀더 다른 각도로 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일들이 새롭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숨어있던 여러가지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 문제 해결력이 생겨나는 것이다.

다시 콜롬부스의 달걀로 돌아가 보자. 앞의 말들을 명심하고 다른 각도로 다시 보자. 새로운 방법들이 떠오를 것이다.

“테이프로 책상에다 붙이면 되겠네.”

“테이프 대신 끈을 사용해도 돼.”

국민학생의 수준이라면 이런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직업이 목수인 사람은 못을 박아 달걀을 책상에 고정시킬 것이다. 미장공이라면 시멘트로 달걀을 세우겠고, 미술가라면 석고나 진흙 등을 사용할 것이다. 의사는 반창고를 사용하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달걀 주위에 흙을 쌓아 넘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반지를 밑에 받치면 달걀이 안 넘어질거야.”

“밀가루 위에 달걀을 올려 놓아도 되지.”

주부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방법은 생각할수록 자꾸 나온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다. <왕연중記> 발특9703

